

# 공존공영의 실현 정신과 함께 성장한 보령제약그룹



▲ 1985년 제정된 의료봉사상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숨은 공적을 기리고 있다.

보령제약그룹 창업주 김승호 회장은 항상 '약을 다루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 남다른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김 회장의 철학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보령제약그룹의 기업 문화로 스며들며 다양한 사회공익활동으로 발현되었다.

보령제약그룹은 '더불어 함께 하는 공존공영'의 실천을 위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기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익활동을 펼쳐왔으며, 점차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의료학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령의료봉사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공익활동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생활과학연구소를 운영하며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제약

그룹은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구호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보령제약그룹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활동은 '보령의료봉사상'이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 보령제약과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이 공동 제정한 상으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숨은 공적을 기리고 있다.

이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함으로써 이 시대의 참 의료인상을 세우고 진정한 의료 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하는 보령제약그룹의 의지가 담겨 있는 상이다. 올해 22회를 맞이했으며 '보령의료봉사상'은 매년 1명의 대상 수상자에게 2,0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도서벽지 무료진료 사업 및 보건소 순회검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한국전립선관리협회의 진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엠블런스를 기증하기도 했다.

보령메디앙스가 운영하는 모자보건생활과학연구소(아이맘)을 통해서 구개열 구순열 아기들을 위한 특수젓꼭지 무료 배포, 예비엄마 교실 및 육아교실 무료 개최, 임신 출산 육아 정보지 무료 배포 등의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보령메디앙스가 1993년부터 시작한 구개열 구순열 아기들을 위한 특수젓꼭지 무료 배포 사업은 입천장이 갈라져서 입술이 좌우, 또는 양쪽으로 갈라져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수 없는 구순열, 구개열 환아들에게 누크 특수젓꼭지를 무료 배포하는 활동이다.

특수 젓꼭지는 독일 괴팅겐 대학의 인류화 기구와 협력해 마파사의 누크에 의해 치의학적으로 만들어진 젓꼭지로, 현재까지 구개열 젓꼭

“

내년 창업50주년을 앞두고 보령제약그룹은 지금까지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총괄할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준비하며,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나눔경영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계획하고 있다.

”

지는 총 11,662개, 구순열 젓꼭지는 1,420개가 배포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환아의 23%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앞으로 특수젓꼭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모자보건생활과학연구소가 발간한 임신가이드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년 10만권씩 임신부들에게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발행, 배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배포된 임신, 육아 가이드는 총 1백만권에 이른다. 이 외에도 보령제약그룹은 인류건강 증진과 공존공영의 실현을 위해 의료학술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암연구기금, 대한고혈압학회 연구비, 대한신장학회 연구진흥 기금 외에도 많은 의료학술학회와 단체에 기부를 해왔다.

지난 2002년에는 국내 중앙학 분야의 학술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한국암연구재단과 공동으로 '보령암학술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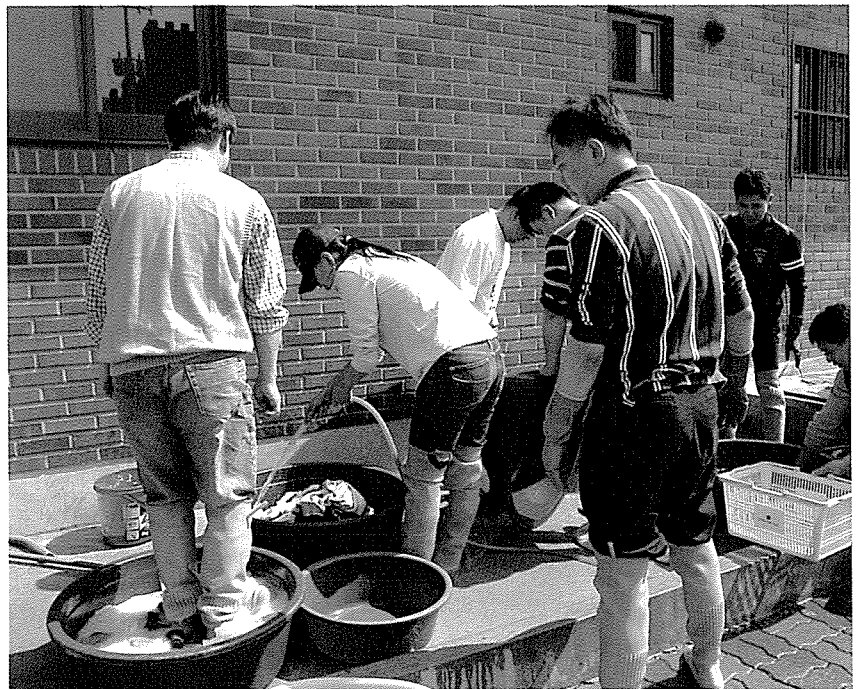
보령제약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아름다운 가게' 운영, 핑크돼지저금통 성금, 불우이웃돕기 일일호프와 함께한 자발적 성금 1천5백여 만원을 모아 희귀병어린이를 돕기도 했다. '보령 1%클럽' 등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활동 동아리의 활동도 활발하다.

내년 창업50주년을 앞두고 보령제약그룹은 지금까지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총괄할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준비하며,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나눔경영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5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입양아 및 불우 아동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고자 홀트아동복지회에 3억원여의 물품을 기증했다. 이 중에는 전국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사무소 11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누크 와이드 젓병3종 및 해피노리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5월 4일 홀트아동복지회 본사에서 진행되었던 홀트바

자회에 참가하여 유피스 젓병, 젓꼭지 및 닥터아토타마일드 스킨케어, 비엔비 젓병세정제, 베이비 오랄크린 등을 직원들이 직접 판매하여 수익금을 전액 홀트아동복지회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 보령제약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아름다운 가게' 운영, 핑크돼지저금통 성금, 불우이웃돕기 일일호프와 함께한 자발적 성금 1천5백여 만원을 모아 희귀병어린이를 돕기도 했다. '보령 1%클럽' 등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활동 동아리의 활동도 활발하다.

### 입양아 및 불우 아동을 위한 동반자

보령메디안스는 2006년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좋은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




▲ 보령 메디앙스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물품 증정뿐 아니라 직원들의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이 날 바자회에 참석한 조성현 보령메디앙스 대표는 입양 전 아기가 이 머물고 있는 홀트일시보호소에 둘러 본 후 유피스 전기 소독기, 쇼콜라 침대 등의 유아용품 기증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하는 입양 가정들에게 아이맘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지 물품 증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보령메디앙스의 직원들은 지난 6월 일산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은 뇌성마비를 비롯한 지체장애인들, 미혼모 자녀들 등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보령메디앙스 직원들은 목욕, 산책, 간식 먹기, 청소 등의 일을 도왔다. 지속적인 제품 증정은 물론 몸으로 함께 부대껴가며 봉사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것. 또한 7월에는 '아이맘 Week에 따뜻한 실천, 입양가족을 초청합니다' 라는 주제로 63시티에서 진행되고 생각공작소에서 주최하는 색깔놀이터 체험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는 입양부모 및 아동 300여명을 초청했다.

8월에는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한 축제인 '아이맘 페스티벌'에 '입양홍보회'가 직접 참여하여 국내 입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보령메디앙스는 축제 기간동안 진행된 바자회 수익금 일부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기부했다. 

## 기슴이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보령제약그룹 봉사동호회 '보령 1% 클럽'

"1%의 소득, 1%의 시간, 1%의 마음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으나 이는 상징적인 것일 뿐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보령제약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활동 동호회인 '보령 1% 클럽' (Boryung 1% Club) 회장인 보령제약 구매팀 김정남 부장(48)의 말이다.

"4년 전 우연한 기회에 개인적으로 추천의 애민보육원이라는 곳을 돕는데 동참하게 된 것을 계기로 회사에 지원을 부탁하게 됐고, 회사 차원에서 의약품과 유아용품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회사 내에 동호회가 많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직원 10여 명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 동호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며 동호회 결성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 장애인 시설인 '안산 평화의 집'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빨래, 청소, 목욕 등을 함께 하며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봉사활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회사에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에 회원들이 매달 내는 회비를 모은다.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봉사활동을 나가는 단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기도 하고, 시설 보수 및 증축에 필요한 성금으로 후원되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물심양면'의 전방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들이 후원한 성금으로 짓는 새로운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다.

'보령1%클럽' 회원 들은 하나같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영혼이 깨끗한 장애인들을 대할 때 봉사라기보다 내 생활에 감사와 행복을 더욱 느끼고 있으며, 더불어 동료간의 우애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보령1%클럽' 모임에는 현재 5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참여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 클럽'은 1개월에 한번 정도이지만, 보육원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소녀소년가장 등 불우한 이웃과 외국인노동자를 후원하며 돕는 일도 진행시킬 예정이다.